

광주FC 시즌 최종전 “기적의 드라마 쓴다”

3일 광주축구전용구장 포항전 승리시 3위로 아시아 무대 진출 무승부·패배 ‘경우의 수’ 따져야 무료시식회·팬사인회 등 이벤트



‘돌풍의 팀’ 광주FC가 올 시즌 최종전에서 창단 후 최초의 아시아 무대 진출을 향한 도전에 나선다. 승리 시 자격으로 3위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만큼 총력전으로 기적의 드라마를 써보겠다는 각오다.

광주FC는 오는 3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2023 3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올 시즌 돌풍의 결말을 볼 수 있는 시즌 최종전이다.

올 시즌 광주는 시민들에 행복을 선사했다. 개막에 앞서 하위권에 머무를 것이라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파이널 A 진출을 넘어 아시아 무대를 가시권에 두며 승격 팀 돌풍을 일으켰다.

호비지와 아이들은 37라운드까지 16승 10무 11패(승점 58)로 3위에 올랐다. 1부리그 승격 직후 구단 역사상 1부리그 최다 승리(종전 2016년 11승)와 승점(종전



광주FC가 오는 3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포항스틸러스와 하나원큐 K리그1 38라운드 홈경기를 치른다. 사진은 광주 선수단이 지난 6월3일 포항과 16라운드 홈경기에서 후반 10분 역전골을 터트린 두현석을 축하하는 모습. **광주FC 제공**

2016년 47점) 기록을 모두 경신했고, 창단 후 처음으로 1부리그 전 구단 상대 승리를 거머쥐며 저력을 과시했다.

돌풍의 마침표는 AFC 챔피언스리그(ACL) 진출이다. 내년부터 ACL이 개편돼 K리그1과 FA컵 우승 팀은 ACL 엘리트(ACLE)로 직행하고, K리그1 준우승팀과 3위 팀에는 각각 ACLE 플레이오프, ACL2 티켓이 주어진다.

다만 올해의 경우 FA컵 우승 팀인 포

항이 K리그1 준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차순위 팀까지 티켓이 주어진다. 광주가 3위에 오른다면 플레이오프에 출전해 ACLE 진출을 노리게 된다.

이정호 감독도 ACLE 진출을 목표로 선수단을 조련하고 있다. 이 감독은 지난 37라운드 전북전 패배 직후 “아직 기회가 있다. 약점을 잘 개선해 최종전을 잘 준비하겠다”며 “최종전이 굉장히 재밌어졌다. 자력으로 3위를 확정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전을 더 신경 쓰겠다”며 승부사 기질을 드러냈다.

이 감독의 최종전 목표는 오직 승리다. 타 구단 상황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광주의 승리에 집중하겠다는 다짐이다. 현재 광주의 아시아 무대 경쟁 상대인 4위 전북(승점 57)과 5위 인천(승점 56)이 맹추격하고 있다.

광주가 포항과 무승부를 거두거나 패배한다면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한다. 승점은 물론 다득점까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5위까지 추락해 아시아 무대 진출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 감독은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우선 클린스만호에 소집된 뒤 전력에 복귀했지만 경고 누적으로 지난 라운드에 나서지 못한 ‘중원의 핵심’ 이순민이 돌아온다. 또 지난 라운드에서 복귀전을 치른 ‘절벽 방패’ 티모 레츠셰르트도 완벽한 모습으로 선발 출장을 대기한다.

엄지성과 허율, 자시르 아사니, 이견희, 하승운, 토마스, 베카 미켈타제 등 공격진도 칼을 갈고 있다. 광주는 파이널 라운드 돌입 후 4경기에서 2득점(이견희, 베카)에 그쳤다. 모처럼의 다득점으로 화끈한 아시아 무대 자축포를 쏘아보겠다는 각오다.

포항은 올 시즌 K리그1 준우승과 FA컵 우승뿐만 아니라 ACL 조별 예선 1조 1위를 확정 지은 상태다. 최근 오베르단과 완델손 등 외인들뿐만 아니라 정재희와 백성동, 김용환, 김중우 등 주축 선수들이 부상으로 이탈했고 우측면 수비수 박승욱도 경고 누적으로 결장한다.

젊은 선수들을 중심으로 경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지만 광주는 호흡을 가다듬는다. 이미 지난 35라운드에서 신예 위주의 라인업을 꾸린 인천에 일격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더욱 집중해 16라운드 4·2 완승의 기억을 되살려야 한다.

한편 광주 구단은 풍성한 이벤트로 시즌 최종전에 방문하는 팬들을 맞이한다. 와플대학 무료 시식회와 하이트진로 무료 시음회를 열어 팬들에 식음료를 제공하고, 총 1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 팬사인회를 연다.

또 선수단 등신대 포토존이 설치되며 전광판 댄스 타임 이벤트도 실시된다. 경기 종료 후에는 태극 치아마이 전지훈련 및 팬미팅 참가권과 건강검진권, 가전제품, 자전거 등 다양한 경품 추첨과 함께 가수 장소영과 진이랑, 더 브로스 캅보 밴드 등의 공연도 열리며 선수단 하이파이브 이벤트도 진행된다. **한규빈 기자**

광주FC 주장 안영규, K리그1 MVP 후보

이정호 감독상·정호연 영플레이어 김경민 등 7명 ‘베스트 11’ 경쟁 전남 발디비아 K리그2 MVP 후보

광주FC 수비수 안영규(사진)가 하나원큐 K리그1 2023 최우수선수상(MVP) 후보에 올랐다. 광주FC 이정호 감독과 정호연은 각각 감독상과 영플레이어상 후보로 선정됐다. 김경민, 이민기, 안영규, 티모, 두현석, 이순민, 아사니 등 7명은 베스트 11 후보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달 28일 올 시즌

K리그1과 K리그2의 최우수감독상, MVP, 영플레이어상, 베스트 11을 선정하기 위한 4배수 후보들을 공개했다.

광주FC 안영규는 김영권(울산), 제카(포항), 티아고(대전)와 K리그1 MVP를 두고 경쟁한다.

안영규는 올 시즌 광주의 ‘돌풍’을 이끈 주역이다. 올 시즌 31경기에 출전해 광주의 최후방을 든든히 지키며 리그 최소 실점 2위(35실점)를 이끌었다. 또 2득점 2도움을 기록, 광주의 파이널 A 진출을 견인했다.



광주FC 정호연은 김주찬(수원삼성), 이호재(포항), 황재원(대구)과 영플레이어상을 놓고 다툰다. 정호연은 올 시즌 광주의 주전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33경기 2득점 4도움을 기록 중이다. 2~3월 레모나 이탈의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했고, 항저우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에 뽑혀 주전 미드필더로 맹활약, 금메달 획득에 앞장섰다.

광주FC의 아시아 무대 진출권 획득도 전을 이끌고 있는 이정호 감독은 김기동(포항), 조성환(인천), 홍명보(울산) 감독과 함께 최우수감독상 후보에 올랐다.

이 감독은 경기를 주도하는 능동적인 축구로 팀을 이끌며 광주 구단 역사상 최다 승, 최다 승점, 최고 순위 등을 모두 갈아치우며 새 역사를 썼다.

광주FC 골키퍼 김경민, 좌측 수비수 이민기, 중앙 수비수 안영규·티모, 우측 수비수 두현석, 중앙 미드필더 이순민, 우측 미드필더 아사니 등 7명은 각 포지션 베스트 11 후보로 선정돼 다른 팀 후보들과 경쟁한다.

전남드래곤즈 중앙 미드필더 발디비아는 K리그2 MVP에 도전한다.

발디비아는 올 시즌 36경기 14득점 14도움을 기록, 최다 득점 2위와 최다 도움 1위를 차지했다. 그의 경쟁 상대는 원두

재(김천), 이한도(부산), 조르지(충북청주)다.

전남드래곤즈 플라나는 우측 미드필더 베스트11 후보로 김범수(안산), 모재현(경남), 야고(안양)와 경쟁한다.

연맹은 선정된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28일부터 감독(30%), 주장(30%), 미디어(40%) 투표를 진행해 최종 수상자를 뽑는다. 베스트11은 골키퍼 1명, 수비수 4명(좌측 1명·중앙 2명·우측 1명), 미드필더 4명(좌측 1명·중앙 2명·우측 1명), 공격수 2명으로 추진한다.

수상자는 오는 4일 서울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리는 ‘2023 하나원큐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발표된다. **한규빈 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종목단체 전무이사 40명이 30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3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평가회의를 갖고 광주체육 발전을 다짐하고 있다.

광주체육회, 현장 행정·지도자들과 광주체육 발전 논의

광주시체육회가 체육현장 행정·지도자들과 광주체육 발전을 논의했다.

광주시체육회는 30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23 국제대회 및 전국체육대회 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의에는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과 종목단체 전무이사 40명, 감독 및 지도자 50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성과 보고, 국제대회 참가 성과 보고, 전국체전 운영 개선 및 향후 발전 방안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황용준 광주체육고 교감은 이날 경기력 향상 우수사례발표를 통해 각 종목단체 전무이사들과 학교 체육발전 방안을 설명했다.

박도성 승마협회 전무이사, 안종권 수피아여고 농구 감독, 정천모 조선이공대 레슬링 지도자 등 90여명의 전무이사들과 감독, 지도자들은 광주체육 발전을 위해 △훈련장 환경개선 △선수 연계 육성 △체육 행정업무의 간소화 △전문 체육교사 배치 및 지도자 파견 등을 건의했다.

글·사진=최동환 기자

호랑이 군단, 무등산서 ‘쓰담산행’ 캠페인



KIA타이거즈 선수단이 무등산국립공원 지킴이 활동을 펼쳤다.

KIA타이거즈 선수단 및 임직원은 30일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쓰담산행’ 캠페인에 동참했다. 쓰담산행 캠페인은 쓰레기를 담는다는 의미로, 탐방객들이 산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날 새 시즌 주장인 나성범을 비롯해 전상현, 정해영, 김대유, 이의리 등 KIA 선수단 및 임직원은 플로깅과 캠페인 등 2개 조로 나뉘어 활동했다. 플로깅조는 중심사지구 탐방안내센터에서 중심사까지 1km 구간을 걸으며 수거했고 캠페인조는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KIA 선수단은 올 시즌 착용했던 유니폼을 국립공원공단에 기부했다. 국립공원공단은 선수단 실착 유니폼을 재활용 사업에 활용해 장갑과 양말 등으로 제작한 뒤 지역사회 취약계층에 전달한다.



KIA타이거즈 선수단 및 임직원이 30일 무등산국립공원 중심사지구 일대에서 쓰담산행 캠페인에 나서 플로깅 활동을 하고 있다.

KIA는 지난 4월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와 ‘무등산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8월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 하는 무등산 데이’를 개최했으며 시즌 종료 후 투수 윤영철과 내야수 김도영이 각각 승리와 도루 횟수에 따른 기부 협약에 따라 240만원과 500만원을 기부했다.

나성범은 “KIA타이거즈 연고지 광주

나성범·이의리·정해영 등 중심사 일대 쓰레기 수거

대표 무등산국립공원 환경을 지키는 활동을 펼쳐 뿌듯하다”며 “내년에도 무등산국립공원을 가꾸는데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신인 이상준 역시 “무등산국립공원에는 처음 와보는데 풍경이 멋있다”며 “등산로가 깨끗해 기분이 좋다. 선진 시민 의식에 놀랐다”고 말했다.

글·사진=한규빈 기자